

## “함께 걸으며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성공 응원하세요”

〈D-63〉

본보 시·도민 페스티벌로 ‘사전 불업’  
내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 일원  
사전 접수자 LED 촛불·생수 등 제공  
물놀이 놀이터·난타 등 즐길거리 다채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시·도민 페스티벌이 오는 5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과 금남로·충장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광주매일신문이 주최·주관하고 (사)광주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후원한다. ‘평화의 울림(The Echo of Peace)’을 슬로건으로 오는 9월 ‘양궁의 메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양궁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전 불업 행사다. ▶관련기사3면

금남로 차 없는 거리(양복5차선 도로)에서 펼쳐지는 시·도민 페스티벌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사전 접수한 시민들에게는 LED 촛불, 생수,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식전 행사로 현장에 모인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랜턴 플래옴스 공연이 진행된다.

김광아 광주양궁협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사)의 개회사, 강기정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내빈 축사에 이어, 한여름 밤을 수놓을 시·도민 성공 기원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내빈과 참



결승전이 열릴 5·18 민주광장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시·도민 페스티벌’이 오는 5일 오후 7시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개회식 후 참가자들은 전일빌딩 245 앞에서 출발해 충장로 3·2·17를 지나 5·18민주광장까지 걷는 성공 기원 촛불 행진 퍼레이드를 펼친다. 5·18민주광장은 광주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로 이곳에서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릴 예정이다. /광주매일신문DB

가자들은 5·18민주광장에서 출발해 금남로공원을 거쳐 충장로 일원을 걷는 ‘시·도민 촛불 걷기대회’에 참가해 LED 촛불을 들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함께 밝힌다.

행사에 앞서 금남로 일원에서는 차없는 거리 행사의 일환으로 물놀이 놀이터가 마련돼 물놀이와 수중 체험 및 난타와 패파라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문화예술 나눔부스 등이 펼쳐진다. 걷기 퍼포먼스 이후에는 영화 관람도 가능하다.

걷기 대회 행사가 열리는 5·18민주광장은 오는 9월 5-12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9월 22-28일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릴 뜻 깊은 장소다.

(사)광주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대한양궁협회는 프레 대회로 치러진 제43회 전국대통령기남녀양궁대회 결승전을 5·18민주광장에서 개최하며 막바지 점검을 통한 성공 의지를 다졌다.

지난 1일에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리키브·컴파운드 국가대표들이 같은 장소에서 이벤트 매치를 치르며 경기장 적응과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이런 (사)광주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오는 9월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린다”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의 배경이 되며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5·18민주광장에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행사가 열려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조직위원회는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역대 최고의 성공 대회로 치러내 광주가 국제스포츠 중심 도시 브랜드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시·도민들의 뜨거운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희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생회복 전력…생활비 부담 완화 처방 총동원”

김민석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李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모두발언

“3대 특검, 헌법질서 재건 역할 기대”

“국민 권한 위임 권력기관 개혁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제목의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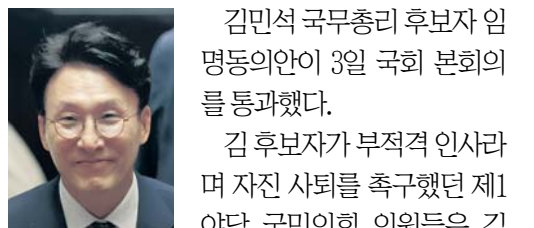
또한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행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다”며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향후 남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일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특검에 의미를 부여했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10일)한 지 35일 만이다. /김진수 기자

12회

# 무등산

##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진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2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승화시키기 위한 일련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5년 6월 9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5년 9월 17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주소,전화,이메일,학생부(학교명·학년)기재할 것.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